

李健儀 墓碣

이건의 묘갈

待執奏有諱陽茂官將軍以至於 穆祖 翼祖
創業 太宗第二子孝寧大君謚靖孝公諱補杲
川君諱益是生登水副正諱連孫是生金城君諱
是生諱保官至建功將軍數世而有諱厚培以原
纓以至於公公諱健儀稟性溫厚而從容居家無
道曾無拂戾以加諸人亦無橫逆之侵尋安穩一
議官生於庚戌二月五日卒於乙卯十月二十三
坐之原配淑夫人慶州李氏丁巳二月十一日生
梧城面竹里長滋谷上麓子坐之原有一子起東
曰康年三曰康元古家之積蔭延綿于古孰弗仰
溫厚其性從容處家 和順積中事親養志 直

이건의 묘갈

李健儀 墓碣

- 소재 :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 시대 : 일제 강점기(1934) ?
- 규모 : 총고(總高) 230cm / 신고(身高) 150cm / 폭(幅) : 55cm
후(厚) 28cm



▶ 찾아가는 길

안중에서 국도를 따라 포승방면으로 가다 학현리 입구의
우측에 위치해 있다.

▶ 참고문헌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碑文

墓碑銘并序

歲甲戌肇夏之月李康世甫以其祖先之狀示余而要銘其墓表焉爲念先世舊誼不獲辭謹按完山李氏始自新羅司空諱翰號甄城是生諱自延官侍中是生諱天祥官僕射是生諱光禧官阿干是生諱立全官司徒是生諱兢休至高麗官司空自是而世襲仕籍有諱華官樞密有諱宮進官翰林有諱勇夫官大將軍有諱璘官內侍執奏有諱陽茂官將軍以至于 穆祖 翼祖 度祖 桓祖積累肇基 太祖創業 太宗第二子孝寧大君諡靖孝公諱補是生瑞原君諡夷安公諱 案 是生堤生堤川君諱蓋是生登水副正諱連孫是生金城君諱壽男 成宗時四等功臣諡良簡是生諱保官建功將軍數世而有諱厚培以原從功臣官司果自是以後世傳簪纓以至于公公諱建儀稟性溫厚而從容居家無疾遽色奉親而養之交人以直道曾無拂淚以加諸人亦無橫逆之侵尋安穩一生令以從之官之正三品中樞院議官生於庚戌二月五日卒於乙卯十月二十三日墓在振威郡玄德面華陽里乾坐之原配淑夫人慶州李氏丁巳二月十一日生癸酉正月十三日卒墓在振威郡梧城面竹里長滋谷上麓子坐之原有一子起東官內部主事有三孫長曰康世次曰康年三曰康元古家之積蔭延綿于世孰弗仰而欽之哉遂爲銘

溫厚其性從容處家 和順積中事親養之 眞在冒中交人以道 拂淚無加橫逆豈至 一生安閒以是從之 華陽吉邱幽宅是邃 我撫其實以銘墓碑

輔國崇祿大夫議政府贊政 奎章閣原任直提學 弘文館學士 侍講院日講官判敦寧府事詩南閔丙奭撰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開國五百四十三年甲戌八月十五日 孫康世謹豎

번역문

묘비명과 서

갑술년(1934) 조하(肇夏)¹⁾의 달에 이강세(李康世)가 그 조상의 행장을 나에게 보이며 묘표에 명(銘)을 청하니 오랫동안 선세(先世)와 맺은 오랜 정의(情誼)를 생각하면 사양할 수 없다. 삼가 살피건대 완산 이씨는 신라의 사공(司空)²⁾ 한(翰)에서 비롯되었으며 호를 견성(甄城)이라 하였다. 이분이 자연(自延)을 낳으시니 벼슬이 시중(侍中)³⁾이었다. 이분이 천상(天祥)을 낳으시니 벼슬이 복야(僕射)⁴⁾였다. 이분이 광희(光禧)를 낳으시니 벼슬이 아간(阿干)⁵⁾이었다. 이분이 입전(立全)을 낳으시니 벼슬이 사도(司徒)⁶⁾였다. 이분이 긍휴(兢休)를 낳으시니 고려에 이르러 벼슬이 사공에 이르렀으며 이로부터 세습하며 사적(仕籍)⁷⁾에 올랐다. 이어 화(華)란 분이 있어 벼슬이 추밀(樞密)⁸⁾이었고, 궁진(宮進)이란 분은 한림(翰林)⁹⁾이었으며, 용부(勇夫)란 분은 벼슬이 대장군(大將軍)이었다. 린(璘)이란 분은 벼슬이 내시¹⁰⁾·집주¹¹⁾(內侍執奏)였고, 양무(陽茂)란 분은 벼슬이 장군이였다. 이어 목조(穆祖)¹²⁾, 익조(翼祖)¹³⁾, 도조(度祖)¹⁴⁾, 환조(桓祖)¹⁵⁾ 등에 이르러 오랫동안 국가의 기틀을 쌓아 태조가 창업하였다.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시호가 정효(靖孝)이며 이름은 보(補)¹⁶⁾이시다. 이분이 서원군(瑞原君)을 낳으시니 시호가 이안(夷安)이고 휘는 친(寔)¹⁷⁾이시다. 이분이 제천¹⁸⁾군(堤川君) 온(崙)을 낳으셨고, 이분이 등수부정(登水副正)¹⁹⁾ 연손(連孫)을 낳았다. 이분이 금성군(金城君) 수남(壽男)을 낳으시니 성종 때 4등공신이며 시호는 양간(良簡)이다. 이분이 보(保)를 낳으시니 벼슬이 건공장군(建功將軍)²⁰⁾이었다. 수세(數世)가 지나 후배(厚培)란 분이 있어 원종공신(原從功臣)²¹⁾이 되었고 벼슬은 사과(司果)²²⁾였다. 이로부터 대대로 잠영(簪纓)²³⁾이 전해져 공에게까지 이르렀다. 공의 이름은 건의(建儀)였고 품성(稟性)이 온후하고 조용히 집에 거처하매 병환이나 갑자기 안색을 바꾸는 일이 없었다. 아버이를 받들어 모시고 다른 사람과 사귀에 바른 도로써 하였다.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바 없으며 또한 당연한 이치에 어그러지게 (남을) 침범하지 않았다. 안온함을 찾는데 일생을 보냈으며 벼슬은 정3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²⁴⁾을 지냈다. 경술년(1850: 철종 1) 2월 5일에 태어나 을묘년(1915) 10월 23일 졸하였고 묘는 진위군 현덕면 화양리(華陽里) 건좌(乾坐)²⁵⁾의 터이다.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경주(慶州) 이씨

(李氏)로 정사년(1857: 철종 8) 2월 11일 태어나 계유년(1933)에 졸하였고 묘는 진위군 오성면 죽리(竹里) 장자곡(長滋谷) 상록(上麓)의 자좌(子坐)의 터이다. 아들은 하나로 기동(起東)이며 관직이 내부²⁶⁾주사(內部主事)였고, 손자는 셋인데 첫째는 강세(康世)이고, 다음은 강년(康年)이며, 셋째는 강원(康元)이다. 고가(古家)의 오랜 음덕은 연면히 후세에 미치니 누가 우러르고 흠모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명(銘)한다.

보국승록대부·의정부찬정·규장각원임직제학·홍문관학사·시강원일강관·판돈녕부사(輔國崇祿大夫議政府贊政奎章閣原任直提學弘文館學士侍講院日講官判敦寧府事) 시남(詩南) 민병석(閔丙奭)²⁷⁾이 짓다.

승록대부·전판돈녕원사(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²⁸⁾가 쓰다.

개국 543년(1934) 갑술 8월 15일에 손 강세(康世)가 삼가 세우다.

주석

- 1) 여름의 시작, 곧 초여름을 가리킨다.
- 2) 임금을 보도하는 벼슬의 하나. 태위(太尉)·사도(司徒) 등과 함께 삼공(三公)이라 불렀다.
- 3) 신라의 집사성과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벼슬이름.
- 4) 상서성의 정2품 벼슬(『고려사』 76 「백관지」1).
- 5) 신라 17관등 가운데 제6관등인 아찬(阿漉)과 같으며, 아척간(阿尺干)이라고도 한다. 6두품(六頭品) 신분층이 오를 수 있는 한계 관등이었으므로 득난(得難)이란 별칭이 있었다. 아찬은 세분화하여 아찬부터 중아찬(重阿漉)·3중아찬·4중아찬으로 올라가는데, 6두품 신분층은 중아찬으로 승급이 끝나며, 17등 관계에는 아찬만 포함되어 있다. 2중·3중·4중아찬도 아찬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관직은 시랑(侍郞)·경(卿)으로 집사성(執事省)·병부(兵部)·창부(倉部)·사천왕사성전(四天王事成典)·대도서(大道署)·영창궁성전(永昌宮成典)·위화부(位和部) 등의 차관급이었으며, 복색(服色)은 비색(緋色)으로 신분을 표시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6) 임금을 보도하는 벼슬로 삼공(三公)의 하나였으나 신라시대에는 거의 제수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7) 벼슬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문서.
- 8) 고려시대 중추원의 판사·사(使)·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부사(副使)·첨

서원사(簽書院事)·직학사(直學士) 등 7관직을 이르는 말.

- 9) 한림원에 속한 관리. 고려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태조 때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떠서 원봉성(元奉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이라 하다가 8대 현종 때에 다시 한림원이라 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한림원으로 되었고, 1362년(공민왕 11)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10) 고려시대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본 관원. 처음에는 재예(才藝)와 용모에 뛰어난 자로서, 20인 내외로 제한하였으나 점차 권문세가(權門勢家)의 자제 또는 시문(詩文)·경문(經文)에 능통한 급제자들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의종(毅宗) 이후 특히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관이 점차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천시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 때의 수는 100명으로, 좌우 번에 각 50명씩 두었다. 고려의 내시는 조선의 환관내시와는 달리, 신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왕근시직으로 고려지배층의 핵심을 이루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11) 왕에게 아뢰는 일을 담당하던 벼슬.
- 12) (?~1274). 고려 사람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 이름은 안사(安社), 본관은 전주. 고종 때 지의주사(知宜州事)를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어 명망이 높았다. 원나라에 귀화, 남경오천호(南京五千戶)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어 여진을 다스렸고, 증손 이자춘(李子春: 桓祖)까지 원나라 벼슬을 하였다. 조선 개국 후 목조에 추증되었고 능은 덕릉(德陵: 咸興)이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13) 13세기 말. 성명은 이행리(李行里), 본관은 전주. 고려후기 태조 이성계의 증조부. 천호(千戶) 이안사(李安社)의 아들로써 1275년(충렬왕 1) 아버지로 부터 천호 및 다루가치의 직을 세습하였고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이 있자 본소(本所)의 군인을 선발하여 원정군에 협력하였다. 이 무렵 충렬왕을 알현하여 고려를 배반한 죄를 용서해줄 것을 청하였고 1300년 원으로 부터 승사랑(承仕郎)의 산계(散階)를 받았다. 아버지와 달리 여진인과 자주 마찰을 빚어 한 때는 그들의 기습을 피하여 두만강 하류의 적도(赤島)로 피난하기도 하였는데 뒤에 다시 덕원으로 돌아왔다. 조선이 개국된 뒤 1394년(태조 3) 익왕(翼王)으로 추존되었고 1396년 익조로 높혔다(『太祖實錄』).
- 14) (?~1342). 이름은 춘(椿), 초명은 선래(善來), 몽고식 이름은 발안티무르, 시호는 공의·성탁(恭毅·聖度), 능은 순릉(純陵). 고려후기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 익조로 추증된 이행리(李行里)의 아들로써 아버지가 죽자 원으로부터 천호 직을 계승하였고 동북지역의 유력자로 활동하였다. 손자인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뒤 1394년(태조 3) 도왕(度王)으로 추존되었고 1396년 도조로 높여졌다(『태조실록』).
- 15) (1315~1361). 조선 태조의 아버지. 이름은 자춘(子春), 시호는 연무성환대왕(淵

武聖桓大王), 본관은 전주. 도조(度祖: 椿)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함경도 쌍성(雙城: 永興)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며 원나라의 천호(千戶)로 있다가 1355년(공민왕 4) 처음으로 고려 조정에 내알(來謁)하여 소부윤(少府尹)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1356년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인우(柳仁雨)가 총관부를 공격할 때 이에 내응(內應)하여 총관부를 함락시켜 함주(咸州)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이 공으로 대중대부·사복경(大中大夫司僕卿)이 되어 저택을 하사받고 개경에 머물렀다. 1360년 왜구가 침입하자 판군기감사(判軍器監判事)로서 서강병마사(西江兵馬使)로 나갔으며, 이듬해 판장작감판사(判將作監判事)로서 삭방도만호·겸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에 임명되어 함경도지방을 다스렸다. 이성계가 조선 개국 후 4대의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할 때 환왕(桓王)이 추증되고, 1411년(태종 11) 종묘사실(宗廟四室)의 존호를 가상(加上)할 때 시호를 연무성 환대왕, 묘호(廟號)를 환조(桓祖)라 하였다. 능은 함흥의 정릉(定陵)이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16) 『성종실록』에 실린 효령대군 이보(1396~1486)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효령대군 이보가 즐하니, 철조하며 조제(弔祭)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보는 태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이미 관례하고는 효령대군에 봉해졌다. 젊어서부터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태종을 따라 평강(平康)에서 사냥하면서 다섯 번을 쏘아 다섯 번 다 맞추니, 위사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편치않으므로 이보가 몸소 탕약을 써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태종이 가상히 여겨 특별히 노비를 내려 주었다. 세종께서 우애가 지극히 도타와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곤 하였다. 이보가 부처를 좋아하여 중들을 많이 모아 불경을 강하였는데, 세조의 돌보아 줌이 지극히 융숭하여서 상뢰(賞賚)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궁중에서 곡연(曲宴)을 할 때면 그가 일찍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어, 혹 밤중에 물러가기도 하였는데, 이런 때면 세조가 초를 잡고 배웅하였으며,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함에 미처서는 그 일을 맡아 보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즉위하여서는 나이 많고 종실의 웃어른이라 하여 예우함이 더욱 융숭하였으며, 여러 번 그 집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고는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 만년이 되어서는 따로 띠집을 지어 겨우 무릎이나 움적일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는데, 비록 한추위나 한더위라 할지라도 늘 거기에서 거처하였다. 아들 7인이 있어, 가장 젊은 사람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매양 좋은 날 아름다운 절기에는 술잔을 들어 축수하고, 창안백발(蒼顏白髮)로 슬하에서 춤을 추니, 진실로 한 시대의 성사이었다. 이 때에 이르러 즐하니, 나이가 91세였다. 시호(諡號)를 정효(靖孝)라 하였으니, 너그럽게 즐기며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하고, 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을 효라 한다(『성종실록』 권191 17년 5월 11일 을묘).

17) 『성종실록』에 실린 서원군 이친(1412~1475)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서원군 이친이 졸하니, 철조하고, 조제(弔祭)·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친은 효령대군 이보의 아들이니, 선덕(宣德) 정미년(1427)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원윤(元尹)을 배수하고, 기유년(1429)에 가정대부(嘉靖大夫) 서원군(瑞原君)에 올려 제수하였다. 을묘년(1435)에 뛰어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정통(正統) 갑자년(1444)에 승헌대부(崇憲大夫)로 고쳐 제수되고, 천순(天順) 기묘년(1459)에 가덕대부(嘉德大夫) 서원경(瑞原卿)에 올랐다. 성화(成化) 정해년(1467)에 다시 서원군(瑞原君)을 봉하였으며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는 64세이다. 시호를 이안(夷安)이라 하니,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고요함을 좋아함이 '이'요, 너그럽고 화평함이 '안'이다. 아들 이추(李菽)는 회의도정(懷義都正)이고, 이납(李蒞)은 덕은도정(德恩都正)이며, 이온(李蘊)은 제천군(堤川君)이고, 이천(李僑)은 예천정(藥川正)이며, 이훈(李薰)은 고림정(高林正)이고, 서자(庶子) 이혜(李蕙)는 청거수(淸渠守)이다(『성종실록』 권60 6년 10월 2일 무인).

- 18) 본래 고구려의 내토군(奈吐郡)인데, 신라에서 내제군(奈堤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제주(堤州)로 고치어, 성종 14년 을미에 자사(刺史)를 두었다가, 목종 8년 을사(1005)에 자사를 폐하였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원주(原州) 임내에 붙이었다가, 예종 원년 병술(1106)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제천현감으로 고쳤다. 별호는 의주(義州)이다(『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 제천현).
- 19) 부정: 종친들에게 제수되던 중3품 관직(『경국대전』 1 이전).
- 20) 조선시대 서반 중3품 상의 무산계(武散階)이다.(『경국대전』 4 병전).
- 21) 조선시대에 큰 공을 세운 정공신(正功臣)을 정할 때 그에 따라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 그 유래는 태조가 그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이 많은 개국공신(開國功臣)을 정할 때,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봉사한 공신의 자·서(嬖)·제, 기타 수종자(隨從者) 1,000여 명에 대하여 원종공신의 칭호를 수여하고 노비(奴婢)와 전토(田土)를 급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정종 즉위년의 정사공신(定社功臣)부터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종의 정공신에 등외공신을 원종공신이라 하여 논상(論賞)하였다. 이들에게 급여한 전토를 공신전이라 하고 노비를 공신노비라 하였으며, 상훈문서(賞勳文書)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및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書)로 구분하여 녹권은 공신 전체의 공적과 상전(賞典)을 기록하고, 교서는 공신 개인의 공적과 상훈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22)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는 정6품 무반직(『경국대전』 4 병전).
- 23) 관원이 쓰는 비녀와 갓끈의 의미로 양반 또는 사족의 다른 표현이다.
- 24) 대한제국시대, 중추원(中樞院)에 딸린 관직 이름. 고종 32년(1895)에 중추원을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하고, 법률·칙령안과 내각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정하기 위하여 의장·부의장·의관을 두었는데, 처음에는 정원을 50인 이내로 하여 1등 의관은 칙임(勅任), 2등·3등 의관은 주임(奏任)으로 하였다가, 광무 2

년(1898)에 1·2·3등을 없애고 모두 주임(奏任)으로 하였으며, 이듬해에 다시 관제를 고쳐 10인은 칙임, 40인은 주임으로 하였다. 광무 9년에 찬의(贊議)로 고쳤다(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권4, 1996).

25) 빛자리, 집터 등의 건방, 곧 서북방을 등진 자리.

26) 조선말기 내무행정을 관장한 중앙관청.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 4월 각 아문(衙門)의 명칭을 부로 바꿀 때 내무아문(內務衙門)을 고친 것으로, 이조에서 맡아본 일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총무(總務)·판적(版籍)·주현(州縣)·위생(衛生)·지리(地理)·사사(寺祠)·회계(會計)의 7국을 두었고,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 1명, 협판(協辦: 勅任) 1명, 국장(局長: 奏任) 5명, 참서관(參書官: 奏任) 8명, 시찰관(視察官: 奏任) 4명, 기사(技師: 奏任) 4명, 주사(主事: 判任) 40명, 기수(技手: 判任) 4명 등을 각각 두었다. 그 뒤 국장 중 1등국장은 칙임관으로 승격되었는데, 1910년 국권피탈 때까지 존속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7) (1858~1940). 문신·서예가. 자는 경소(景召), 호는 시남(詩南)·의재(毅齋), 본관은 여흥.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閔復基)의 부친. 1879년(고종 1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1884년 승지로 있을 때, 수구과로서 갑신정변에 실패한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하자 장은규(張殷奎)를 자객으로 보내어 암살하게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대사성(大司成),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제도국총재(制度局總裁), 헌병대사령관 등을 지냈다. 1910년 국권피탈 뒤 일본 정부의 자작과 은사금을 받았고, 이왕직장관을 역임하였다. 서화에 뛰어났으며 행서에 능하여 서울 광화문에 '고종황제 보령육순 어극 사십년 칭경기념비(高宗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를 썼고, 편서(編書)로 『덕행교범 德行教範』을 남겼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8) (1853~1939).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장위산인(獐位山人), 본관은 해평. 1871년(고종 8) 정시문과에 급제, 검열(檢閱)에 임명되었고, 예조·이조판서를 지냈다. 법부·탁지부·내무 대신에 10여 차례 임명되나 모두 사절하고, 서울 근교 장위산(獐位山) 밑에 은거하였다.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 해서·행서·금석문을 많이 썼으며, 죽란(竹蘭)도 잘 그렸다. 국권피탈 뒤 일본정부가 남작을 수여하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글씨에 「문간공한장석신도비 文簡公韓章錫神道碑」, 「선성군무생이공신도비(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 그림에 「묵죽 墨竹」 등이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